

2026. 6. 02.

출장 결과 보고

「2026 인천연구원-산동사회과학원 학술교류 세미나」
국외 행사개최 결과보고

「2026 인천연구원-산동사회과학원 학술교류 세미나」 국외 행사개최 결과보고

I 출장개요

■ 출장 목적

- 인천연구원과 산동성사회과학원은 2006년 연구교류 협정을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24년 ‘산동성-인천 우호결연 20주년’을 계기로 교류 재개 및 확대의 기반이 마련됨.
- 2026년 학술교류 세미나는 “한중 체험경제 및 헬스케어산업 발전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산업구조 전환과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과 산업 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 양 기관의 연구성과와 산업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발굴 및 공동연구 연계를 모색하고자 함.
- 아울러,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례 학술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체계의 지속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글로벌 경제의 주요한 공간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수도권 내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들의 도시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과제를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인천연구원과 톈진사회과학원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학술행사임.

■ 출장 기간: 2026.5.20.(수)~2026.5.22.(금) [2박 3일]

■ 출장 국가 및 도시: 중국 산동성 지난시

■ 출장자: 최계운(원장), 김수한(선임연구위원), 최태림(연구위원), 민혁기(연구위원), 최여울(연구위원), 김지선(과장)

■ 담당업무

출장자	직급 및 부서	주요 업무
최계운	원장	○ 방문단장, 축사, 업무협약 조인
김수한	선임연구위원 경제산업연구부	○ 체험경제 분야 논평
최태림	연구위원 경제산업연구부	○ 체험경제 분야 발표 - 인천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체험경제 정책구상
민혁기	연구위원 도시공간연구부	○ 헬스산업 분야 논평
최여울	연구위원 환경안전연구부	○ 헬스산업 분야 발표 - 건강한 실내환경과 시니어 헬스케어: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선	과장 연구기획실	○ 방문단 운영·기록 ○ 업무협약문 작성 및 협의, 회의·시찰 지원

■ 출장 일정

날 짜	지 역	시 간	주요 일정
1일 차 20일(수)	인천 지난	11:45~12:25	• 인천 출발 → 지난 도착(SC 8002, 1시간 40분)
		15:30~17:00	• 체험경제 관련 시찰: 표돌천(趵突泉)
		18:00~20:00	• 공식만찬(후친샤오 원장 주재)
2일 차 21일(목)	지난	09:00~12:30	• 인천연구원-산둥사회과학원 업무협약식 • 2026 인천연구원-산둥사회과학원 학술교류세미나 - 한중 체험경제 및 헬스산업 발전과 협력 방안
		12:30~14:00	• 오찬(한젠원 부서기 주재)
		14:30~16:00	• 산둥성생태환경계획연구원(山东省生态环境规划研究院)
		16:00~18:00	• 휴식 및 이동
		18:00~19:80	• 만찬
		19:30~21:00	• 체험경제 관련 시찰: 대명호(大明湖)
3일 차 22일(금)	지난 인천	09:30~11:30	• 도시재생 관련 시찰: 상신가(上新街)
		12:00~13:30	• 오찬
		13:00~15:00	• 체험경제 관련 시찰: 흑호천(黑虎泉)
		20:20~23:00	• 지난 출발 → 인천 도착(SC 8009, 1시간 30분)

※ 현지 시각 기준

II 출장 결과

1 협약서 조인식 및 학술교류 세미나 개요

- 일 시: 2026년 5월 21일(목) 09:00~12:30
- 장 소: 산둥성사회과학원 9층 멀티미디어회의실
- 주 제: “한중 체험경제 및 헬스케어산업 발전과 협력 방안”
- 주 최: 인천연구원, 산둥사회과학원
- 주 관: 산둥사회과학원
- 참석인원: 한중일 연구기관 임직원 및 패널 36명 내외
- 운 영: 한-중 순차통역

구분	시간	내 용
사회		장넨밍(张念明, 산둥사회과학원 과학연구관리부 부장, 교수)
개회식	09:00~09:1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환영사: 후친샤오(胡钦晓, 산둥사회과학원 원장) - 축 사: 최계운(인천연구원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 조인
체험경제	09:16~10:16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1: 최태림(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연구위원) - 인천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체험경제 정책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2: 위팅(于婷, 산둥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 산둥성 체험경제 발전 동향 및 전망
	10:16~10:2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평 - 김수한(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판위보(范玉波, 산둥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교수)
10:28~10:38(10')		휴식
사회		왕런(王韧, 산둥사회과학원 싱크탱크연구센터 센터장, 교수)
헬스케어 산업	10:37~11:37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3: 리우나(刘娜, 산둥사회과학원 인구·사회발전연구원 부교수) - 산둥성 노인 건강요양 산업 발전 현황 및 대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4: 최여울(인천연구원 환경안전연구부 연구위원) - 건강한 실내환경과 시니어 헬스케어: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11:37~11:4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평 - 양수원(杨素雯, 산둥사회과학원 인구·사회발전연구원 부원장, 부교수) - 민혁기(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1:49~12:00(11')		자유토론
폐회	12:00~12:05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요약: 한젠원(韩建文, 산둥사회과학원 당위원회 부서기, 교수) - 기념촬영

2 발표 [체험경제]

■ 발표1: 인천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체험경제 정책구상

최태림(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연구위원)

- 소비 흐름 변화와 체험경제의 의미
 - 디지털 유통 확대와 전통 상권 쇠퇴 등 지역경제 소비 환경의 구조적 변화 발생
 - 소비자가 단순한 상품 구매보다 의미 있는 경험, 심리적 만족, 오감의 즐거움에 지출하는 흐름 확대
 - 시민과 방문자에게 양질의 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 강조
- 인천 체험산업의 성장 가능성
 - 창의적 자원 투입, 취향 기반 소비, 대면서비스 여부 등을 기준으로 체험산업군 선별
 - 분석 결과, 제조업 중심 도시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인천의 체험산업 성장 가능성 확인
 - 화장품, 푸드, 스포츠·여가레저, 창작예술, 대면서비스 등이 잠재력 높은 업종군으로 도출
- 인천 체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향
 - K-Culture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활용 수준은 아직 제한적
 - 지역 문화자산을 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한 창작 생태계 및 인재양성 기반 강화 필요
 - 지역상권에 개성과 스토리를 부여하고, 국제행사와 대형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연 인프라 확충 필요
- 분야별 정책 구상
 - 로컬크리에이터 유입과 상권 재디자인을 통한 지역 기반 창의인재 활용 방안 제시
 - 뷰티 체험 플랫폼, K-푸드 투어리즘, 공연예술 인프라, 시민 여가형 스포츠 공간 등 분야별 체험경제 모델 구상
 - 인천국제공항, 지역 식문화, 기존 스포츠 인프라 등 인천이 보유한 자산을 체험 콘텐츠로 연계하는 방안 제안
- 향후 과제와 기대효과
 - 체험경제를 인천시 지역산업 육성 전략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
 - 인천의 체험경제 발전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로,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기반 조성 필요
 - 지역산업, 문화자산, 관광, 시민 여가를 연계한 융복합 산업전략으로 발전 가능성 확인



■ 발표2: 산동성 체험경제 발전 동향 및 전망

위팅(于婷, 산동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 중국 체험경제의 성장 흐름

- 중국 체험경제는 연안 거점지역에서 내륙으로, 고급 소비에서 대중 소비로 확산되는 성장 단계에 진입
- 문화관광, 리테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형 소비 모델 확대
-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콘텐츠가 결합하면서 농촌관광, 무형문화유산 관광, 콘서트 관광 등 심층 체험형 소비 증가

○ 산동성 체험경제의 발전 기반

- 산동성은 소비시장 규모와 관광 수요가 큰 지역으로, 체험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비 거점으로 평가
- 도시공원, 녹도, 외식 인프라, 관광 교통망 등 체험경제를 뒷받침하는 공간·교통 기반 확충
- 몰입형 체험관, 테마 전시, 농촌 체험관광, 디지털 문화관광 등 새로운 체험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

○ 산동성 주요 사례와 시사점

- 구국황하정 경관지구는 황하 문화를 기반으로 농경 체험, 민속 공연, 무형문화재 공방, 디지털 전시 등을 결합한 실감형 관광 사례로 제시
- 취푸 니산성경은 공자 문화와 유교 전통을 활용하여 전통 의례, 야간 공연, 교육여행, 문화상품을 연계한 복합 체험공간으로 발전
- 두 사례 모두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체험 콘텐츠로 전환하고, 관광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

○ 체험경제의 향후 전망

- 5G, AI, VR/A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개인화 체험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소비자는 물질적 소비보다 정신적 만족, 참여, 자기표현,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 향후 체험경제는 문화관광, 기술, 교육, 헬스케어 등 이종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논평 1: 김수한(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산둥 체험경제의 정책적 의미
 - 산둥의 체험경제는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소비자의 감정·참여·기억·문화적 공감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형태로 제시
 - 유교문화, 황하문화, 농촌문화, 디지털 전시, 야간관광 등을 활용해 전통 관광지를 참여형·체류형 복합 체험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인천-산둥 협력 가능성
 - 산둥은 공자문화·황하문화·농촌문화 등 전통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인천은 개항장·차이나타운·송도국제 도시·섬·해양관광 등 도시자원을 보유
 - 양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체험형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도시재생·로컬상권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협력 가능성 확인
- 공동연구 및 청년교류 과제
 - 체험경제는 경제, 문화, 도시정책, 관광,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융합 의제로서 양 기관 공동연구에 적합
 - 한중 청년소비문화, 역사문화자원 재생, 야간경제, 로컬상권 활성화, 농촌·섬지역 체험관광 등을 향후 협력 과제로 발전시킬 필요성 제기



■ 논평 2: 판위보(范玉波, 산둥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교수)

- 체험경제 발표에 대한 주요 논평
 - 산둥성과 인천의 발표는 각각 지역 실천에 기반한 '중국식 성장'과 정책 구상에 기반한 '한국식 혁신'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
 - 체험경제는 더 이상 부가적 소비 요소가 아니라, 소비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
 - 체험경제가 문화관광,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제조, 뷰티, 공항 유동인구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며 시스템 융합형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
- 산둥과 인천의 상호보완성 및 협력 방향
 - 산둥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대규모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시장 자발성+정책 유도형' 체험경제 모델을 형성

- 인천은 국제공항, K-Culture, 정책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정책 주도+글로벌 연계형' 체험경제 모델을 제시
- 향후 양 지역은 체험경제 표준 상호인정, 인재 공동양성, 초국경 체험관광 노선 개발 등 실질적 협력과제 발굴 필요



[헬스케어 산업]

■ 발표3: 산둥성 노인 건강·요양 산업 발전 현황 및 대표 사례

리우나(刘娜, 산둥사회과학원 인구·사회발전연구원 부교수)

- 산둥성 노인 건강·요양 산업의 발전 배경
 - 산둥성은 중국 내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고령화 심화에 따라 건강·요양 서비스와 관련 제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
 - 노인 건강·요양 산업은 돌봄, 의료간호, 재활보전, 장기요양, 노년 문화관광 등을 포괄하는 복합 산업으로 확대
 - 의료·요양 결합, 스마트 건강·요양, 고령친화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며 산업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
- 정책 지원 강화와 산업 기반 확대
 - 산둥성은 의료·요양 통합, 스마트 요양, 노년 문화관광, 재활 보조기기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정책 방향은 민생 보장 중심에서 실버경제 육성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전
 - 건강·요양 산업이 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
- 노년층 수요 변화와 건강·요양 서비스 고도화
 - 노년층의 소득 수준과 소비 의식 변화에 따라 건강·요양 수요가 다변화·고급화·세분화되는 흐름
 - 생활 돌봄, 의료 치료, 만성질환 관리 등 기본 요양 수요와 함께 문화·여가, 체류형 요양, 건강관리 등 '즐기는 노후' 수요 확대
 - 기초 보장, 보편적 서비스, 프리미엄 건강·요양 서비스가 공존하는 다층적 산업구조 형성 필요
- 기술 기반 건강·요양 산업 전환
 - AI, 빅데이터, IoT, 웨어러블 기기, 재활 로봇 등이 건강·요양 산업 고도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
 - 스마트 모니터링, 원격의료, 디지털 재활, AI 돌봄 등을 통해 돌봄 인력 부족과 서비스 불균형 문제 완화 가능
 - 재가·지역사회·시설 돌봄을 연계하고 의료·요양·재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 대표 사례와 시사점

- 칭다오 건강·요양 로봇 및 스마트 재활제품 훈련·검증센터는 실제 돌봄 환경을 기반으로 스마트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사례
- 타이강즈자 프리미엄 시니어 커뮤니티는 주거, 의료, 재활,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의료·요양 복합단지 사례
- 샤오캉다오자 APP은 온라인 주문과 오프라인 방문 서비스를 연계한 디지털 재가 돌봄 플랫폼으로, 산동성 건강·요양 산업의 스마트화·복합화·재가화 흐름을 보여줌



■ 발표4: 건강한 실내환경과 시니어 헬스케어: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최여울(인천연구원 환경안전연구부 연구위원)

○ 주거공간 중심의 시니어 헬스케어 필요성

- 고령자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 현장으로 제시
- 인천은 2050년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화에 따른 주거 기반 건강관리 중요성 증대
- 고령자의 생활 반경 축소와 실내 체류 증가에 따라 주거환경 관리가 시니어 헬스케어의 핵심 요소로 부상

○ 실내환경과 고령자 건강 취약성

- 고령자는 공기질, 온도·습도, 곰팡이·해충 등 실내환경 요인에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인천 거주 6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결과, 80대 이상은 하루 평균 16.8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열악한 실내환경은 건강 악화, 외부활동 감소, 실내 체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 실내환경 관리 수요와 자가관리의 한계

- 고령자가 인식하는 실내환경의 주요 문제는 실내 미세먼지로 나타났으나, 실제 지원 수요는 냉난방기 지원과 주택 단열 개선에 집중
- 공기질 관리는 창문 열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온습도 등 실내환경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
- 고령자의 자가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과학적 진단과 자동화된 관리체계 필요성 제기

○ 주거 기반 시니어 헬스케어 연계 방향

- 주거현장을 중심으로 실내환경 진단, 환경 개선, 지속 모니터링, 질환 예방을 연계하는 체계 필요

- 냉난방, 단열, 환기 개선과 스마트 온습도·환기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기반 마련
 - 주거환경 개선을 환경성질환 예방과 생활 건강관리로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 강조
- 정책 추진과제와 기대효과
- 물리·환경 개선, 건강관리 연계, 사회경제적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 고령층 실내환경 이용권 찾아가는 에너지 서비스, 시니어 실내환경 교육 등을 통해 맞춤형 자원체계 마련 필요
 -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은 고령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예방 중심 시니어 헬스케어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됨



■ **논평 3: 양수원(杨素雯, 산둥사회과학원 인구·사회발전연구원 부원장, 부교수)**

- 실내환경과 시니어 헬스케어 발표에 대한 주요 논평
-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실내환경과 고령자 건강관리의 연관성을 제시한 발표로, 현실적 문제의식과 정책적 참고 가치가 높다고 평가
 - 고령자의 실내 체류시간 증가와 함께, 실내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제 지원 수요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요한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
 - 특히 고령자가 미세먼지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실제로는 냉난방 설비와 단열 개선 수요가 크다는 점에 주목
- 정책 설계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 '잡·진단·개선·모니터링·예방'으로 이어지는 체계와 실내환경 이용권 방문 진단, 스마트 모니터링, 환경교육 등 구체적 정책수단을 높게 평가
 - 실내환경 개선을 단순 주거지원이 아니라 고령사회 건강관리와 돌봄 예방의 정책수단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 향후 도시와 농촌, 주택유형별 차이, 스마트 기기 수용성, 디지털 격차,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한 비교연구와 한중 시범협력 가능성 제기됨



■ 논평 4: 민혁기(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산동성 노인 건강·요양 산업의 의미와 협력 가능성

- 산동성 노인 건강·요양 산업은 의료, 요양, 문화관광, 스마트기술, 고령친화 제조업이 결합된 복합형 전략산업으로 제시됨
- 고령화 대응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직면한 공통 과제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형 협력 의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은 돌봄과 보호를 넘어 건강수명, 자립생활, 주거, 여가, 사회참여, 정신건강 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실버산업은 고령자를 위한 제품·서비스 시장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의 삶 전체를 지원하는 산업 생태계로 발전 가능성이 큼

○ 산동-인천 정책협력 방향

- 산동성은 의료·요양 산업 육성과 스마트 돌봄기술 실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 양 지역은 고령자의 이동, 주거, 안전, 응급대응, 건강관리 등을 포괄하는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모델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음
- 또한 산동의 시니어 커뮤니티 사례와 인천의 고령자 주거·통합돌봄 연구를 비교하여, 지역사회 계속거주와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모델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쇠퇴지역, 농어촌, 도서지역 등 돌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제공 방안과 고령자의 외로움, 사회참여, 정신건강 문제를 공동 협력 의제로 발전시킬 수 있음



③ 현지 시찰

■ 1일차(5월 20일): 표돌천(趵突泉)

개요

- 표돌천(바오투촨)은 산둥성 지난시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 용천경관구역으로 지난을 상징하는 핵심 자연·문화자산
 - 지난 72명천(名泉) 가운데 으뜸으로 평가되며, 대명호·천불산과 함께 지난의 3대 명승 중 하나
 - 청대 건륭제가 ‘천하제일천(天下第一泉)’으로 칭한 것으로 전해지며, 지난의 ‘천성(泉城)’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 기능
- 바오투촨공원은 1956년 조성 이후 확장·정비를 거쳐 도심형 샘물 경관공원으로 발전
 - 공원 내 바오투촨을 중심으로 관란정(观澜亭), 낙원당(深源堂), 이청조기념관, 민족원 등 역사문화시설이 함께 배치
- 바오투촨은 지하 석회암층과 지난의 지형 구조가 결합되어 형성된 카르스트 용천으로, 자연지질 자원의 도시문화자산화 사례에 해당
 - 세 갈래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독특한 경관을 통해 방문객에게 시각적·청각적 체험 제공
 - 도심 내에서 수자원, 역사문화, 휴식, 관광 기능이 결합된 대표적 도시형 생태·문화공간으로 활용
 - 위치: 산둥성 지난시 리샤구 바오투촨난로 1호 일원, 대명호·오룡담·천성광장 등 주요 관광자원과 인접하여 우수한 접근성 확보

시사점

- 자연수자원을 도시 정체성의 핵심 브랜드로 발전시킨 사례로, ‘천성 지난의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
- 단순 자연경관 보존에 그치지 않고, 역사 인물, 전통 건축, 원림 경관, 문화행사를 결합하여 체류형 관광공간으로 활용
- 도심 내 수변·녹지 공간을 시민 휴식, 관광, 문화체험 기능과 연계한 복합공간 운영 방식 확인
- 샘물의 지속적 보전과 수위 관리가 관광자원 유지의 핵심 조건이라는 점에서, 자연자원의 보전과 도시개발 간 균형 필요성 시사
- 자연 자원의 가치는 자원 보존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징 이미지와 시민 및 방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연결할 때 확대될 수 있음
- 인천의 해양, 항만, 섬, 개항장 등 지역자원 역시 개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보다, 도시 정체성을 설명하는 통합 스토리와 체험 동선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2일차(5월 21일): 산둥성생태환경계획연구원(山东省生态环境规划研究院)

☞ 개요

- 산둥성생태환경계획연구원은 산둥성 생태환경 분야의 정책 연구와 계획 수립 담당
 - 2006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 말 산둥성 생태환경청 소속 공익성 사업단위로 전환된 기관임
 -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대기, 물환경, 해양환경, 토양, 고체폐기물, 기후변화 대응, 환경산업, 농촌 생태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함
 - 대기환경, 기후변화 대응, 물환경 보호, 해양환경 보호, 토양 및 고체폐기물, 환경산업 등 분야별 연구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육상·해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점 연구조직과 실험실 운영
 - 또한 생물다양성 보호, 황허 삼각주 지역 생태환경, 환경오염 측정 및 평가, 환경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연구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산둥대학교 등과 연계한 박사후 연구 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직접적인 한-중 공동연구 과제는 없으나, 중국 과학기술부와 산둥성 과학기술청 차원에서 국제협력 연구사업이 운영하고 있음
 - 국제협력 사업은 크게 기술 연구개발형 사업과 인력교류·학술교류형 사업으로 구분되며,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실용기술 또는 관리기술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의 연구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
 - 산둥성 생태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정부 정책 수립과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5개년 단위의 환경계획 수립, 유역 생태환경 조사, 주요 오염원 분석, 정책목표 설정 및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논의내용

- 중국의 ‘스펀지 시티’ 정책과 저영향개발기법(LID)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해당 정책이 생태환경 관련 기관의 업무와 연계되는지 질의함
 - 생태연구원은 스펀지 시티 정책은 주로 수리부 등 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이나, 도시와 자연의 조화, 기후변화 대응, 도시 회복력 강화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분야임을 설명
 - 자료 공유와 관련해서는 상당수 환경 관련 데이터가 생태환경부 또는 관련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나, 일부 자료는 공개 절차나 허가 필요

☞ 향후 협력 방향

- 양 기관은 이번 면담을 첫 교류의 계기로 향후 산둥사회과학원 또는 산둥성 생태환경 관련 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가능성 모색
- 협력 가능 분야로는 물환경 관리, 해양환경 보호, 육해 통합관리, 기후변화 대응, 도시 생태환경 개선, 스펀지 시티 및 저영향개발기법, 환경 빅데이터 활용 등이 제시



■ 2일차(5월 21일): 대명호(大明湖)

개요

- 대명호는 산둥성 지난시 구도심 북부에 위치한 대표적 호수형 도시공원으로, 바오투촨 천불산과 함께 지난의 주요 명승지로 평가됨
 - 지난의 여러 샘물이 흘러들어 형성된 자연 호수로, '천성(泉城)' 지난의 수자원과 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임
 -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넓은 수면, 연꽃, 버드나무,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진 경관 형성
- 대명호 일대는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산이 결합된 복합 관광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호수를 중심으로 산책로, 정자, 누각, 교량, 전통 원림 등이 배치되어 시민 휴식과 관광 기능
 - 초연루(超然樓), 역하정(历下亭), 철공사(铁公祠) 등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호수 경관과 연계
 - 수변 경관 감상, 전통 건축 탐방, 야간 조명, 문화체험 등이 결합된 도심형 체류 관광지로 활용
- 대명호는 지난의 자연 수자원, 역사성, 시민 여가 기능이 중첩된 대표적 도시공간임
 - 호수 주변의 보행 동선을 따라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체류할 수 있는 구조 형성
 - 바오투촨, 흑호천, 천성광장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도심 관광축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
 - 위치: 산둥성 지난시 리샤구 일원으로, 구도심 주요 관광지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함

시사점

- 대명호는 도심 내 자연 수자원을 도시 브랜드와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대표 사례임
- 호수, 샘물, 전통 건축, 역사 인물, 수변 산책로를 결합하여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체험이 공존하는 공간을 형성함
- 시민의 일상적 휴식공간이자 외래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지로 기능하며, 생활공간과 관광공간의 균형 있는 활용 가능성 확인
- 주변 명소와의 연계를 통해 개별 관광지가 아닌 도심 전체의 보행형 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3일차(6월 25일): 상신가(上新街)

개요

- 상신가는 산둥성 지난시 구도심 핵심부에 위치한 백년 역사거리로, 지난의 근현대 도시문화와 생활경관이 중첩된 역사문화지구임
 - 민국 초기 형성된 거리로, 지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차 높아지고 당시 신설된 '신건문(新健門)'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신가'라는 명칭이 유래함
 - 북쪽으로 바오투촨(趵突泉), 남쪽으로 산둥대학 의학원, 동쪽으로 치루병원, 서쪽으로 중앙상부구와 접해 있어 지난 구도심의 역사·문화·상업 기능이 만나는 입지적 특성 보유
 - 지난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 도시공간과 인접하여, 지난의 민국문화와 근현대 생활사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거리로 평가됨
- 상신가 일대는 역사건축과 생활형 골목공간이 비교적 밀도 있게 남아 있는 지역임
 - 구역 내 문화재 보호건축 6곳, 역사건축 10곳, 명인 고거 12곳, 특색 민가(院落) 22곳 등이 분포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집적도가 높음
 - 과거 상인과 문화인, 지역 명사들이 모여들던 생활문화 거점이었으나, 도시 변화 과정에서 시설 노후화와 환경 쇠퇴 문제가 누적됨
 - 이에 따라 역사적 가치 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됨
- 상신가 도시갱신사업은 역사거리의 원형 보존과 현대적 기능 도입을 결합한 대표적 재생 사례임
 - 2022년 5월 지난성발그룹과 시중구 정부가 협력하여 상신가 도시갱신사업을 추진함
 - 해당 사업은 지난시 최초이자 유일한 성급 도시갱신 프로젝트로 지정되었으며, '신문화 신체험·신건강'의 예술문화 생활거리 조성을 목표로 함
 - 공간 구성은 '1개 주가로, 3개 중심, 8개 골목'을 연결하는 보행형 동선으로 계획되었으며, 건축 기억 보존, 문화 전승, 산업 도입, 지역 활성화를 주요 원칙으로 설정함
- 최근 상신가는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상업·여가 복합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음
 - 상신가 북광장, 주가로, 상신가소학교, 108호 근현대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문화행사와 전시, 브랜드 팝업,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됨
 - 음악제, 브랜드 플리마켓, 여름 유원회, 도시 캠핑 등 청년층과 방문객을 겨냥한 문화콘텐츠를 도입하여 거리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음
 - 역사거리의 장소성을 유지하면서도 카페, 비유산 문창, 생활방식 브랜드, 예술전시 등을 결합한 새로운 소비·체험 공간으로 전환 중임

시사점

- 상신가는 역사건축과 생활골목을 전면 철거하지 않고, 기존 도시기억과 골목 구조를 유지한 채 현대적 기능을 도입한 도시재생 사례임. 이는 낡은 공간을 단순히 정비하거나 상업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축적해 온 역사성과 생활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도시 기능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문화재, 역사건축, 명인 고거, 특색 민가 등 산재한 자원을 하나의 보행형 거리 경험으로 연결하여, 개별 건축물 보존을 넘어 지구 단위의 장소성을 강화함. 특히 역사문화 자원을 점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골목 동선과 거리 경관, 체험 콘텐츠를 결합함으로써 방문자가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임
- ‘신문화신체함·신건강’이라는 방향 아래 전시, 공연, 브랜드 팝업, 청년 소비문화, 생활형 상업을 결합하여 역사거리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이를 통해 역사문화 공간이 과거의 보존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층과 관광객,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소비·생활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단순 관광지 조성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역사문화 보존, 산업 도입, 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복합형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됨. 특히 보존과 개발, 관광과 생활, 문화와 산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전략안에서 결합했다는 점은 원도심 재생과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도시들에게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함



■ 3일차(5월 22일): 흑호천(黑虎泉)

▣ 개요

- 흑호천은 산둥성 지난시 리사구 해방각 남측 호성하 남안에 위치한 지난의 대표적 샘물 경관지임
 - 금대 「명천비」, 명대 「칠십이천시」, 청대 「칠십이천기」 등에 기록된 지난 72명천 중 하나로, 흑호천천군의 대표샘으로 평가됨
 - 바오투완, 진주천, 오룡담과 함께 지난의 주요 샘물 경관을 구성하는 핵심 자연·문화자산에 해당함
- 흑호천은 자연 동굴에서 솟아난 샘물이 세 개의 석조 호랑이 머리를 통해 분출되는 독특한 경관을 형성함

- 동굴은 높이 약 2m, 깊이 약 3m, 폭 약 1.7m 규모이며, 샘물은 암거를 따라 세 개의 호랑이 입을 통해 방형 샘로 흘러나오는 구조임
 - 물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호랑이 울음소리와 유사하다고 하여 '흑호천'이라는 명칭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짐
- 흑호천 일대는 환성공원, 호성하, 해방각과 연계된 도심형 수변·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흑호천 주변에는 비파천, 구녀천, 백석천 등 14개 샘이 분포하여 흑호천 천군을 구성함
 - 샘물이 호성하로 흘러들며 수변 산책, 경관 감상, 시민 휴식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임
 - 해방각, 천성광장 등 주요 도심 관광자원과 인접하여 보행 접근성과 연계 관광 가능성이 우수함

시사점

- 흑호천은 자연 수자원과 도시 수변공간을 결합하여 도심 속 생활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임. 대규모 관광시설 조성보다 기존 샘물과 수변 경관의 특성을 살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속 휴식·체험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샘물 경관, 역사 기록, 호랑이 형상 조형물, 물소리 등 자연·상징·감각 요소가 결합되어 장소성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흑호천이라는 명칭과 관련된 상징성을 시각적 조형물로 구현하고, 흐르는 물과 수변 동선을 통해 방문자가 공간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임
- 시민의 일상적 이용과 관광객의 경관 체험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연자원의 보전과 생활문화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흑호천은 단순한 관람형 명소가 아니라, 시민에게는 산책과 휴식의 생활공간으로, 관광객에게는 도시의 자연성과 역사성을 체험하는 수변 관광공간으로 기능함.
- 규모가 크지 않은 자연 자원도 주변 도시자원에 편입될 경우, 도시 전체의 생활형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3 향후 계획

■ 협약기반 산동사회과학원과의 학술교류 고도화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산동사회과학원과의 기관 간 교류 채널을 유지하고 연구자료 공유 및 전문가 의견교환 등 학술교류 기반을 관리함
 -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체험경제, 헬스케어 산업, 고령사회 대응, 도시정책 등 공통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였고, 업무협약을 통해 정기 학술교류와 정책 교류의 기반을 재확인함
 - 향후 교류는 기관 간 신뢰 유지, 세미나 주제 협의, 연구자료 공유, 정책 동향 파악, 전문가 의견교환 등으로 추진함
 - 인천연구원과 산동사회과학원 간 정례 학술교류를 중심에 두고, 주제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관련 인천과 산동의 민산학 관계자 공동 참여를 검토, 교류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방안을 모색해 나감
- 지방정부 정책연구기관이라는 양 기관의 공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지역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
 -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가 협의한 협력 의제와 민선 9기 인천 시정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공동 연구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양국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 산업 전환, 생활서비스 수요 확대 등 사회경제적 과제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호 정책학습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산동성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헬스케어 인공지능 러닝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의 고령사회 대응 및 헬스케어 산업정책과 연계 가능한 시사점을 검토할 수 있음

■ 학술교류 결과의 원내 자료화

- 산동학술교류 세미나에서 논의된 산동성의 체험경제 및 노인 건강·요양 산업 동향을 원내 참고 자료로 정리하여 관리함
 - 산동사회과학원 발표에서 제시된 체험경제의 문화관광,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교육 등 융합 분야 확대 흐름과 몰입형·개인화·참여형 소비 변화 내용을 정리함
 - 산동성 노인 건강·요양 산업 발표에서 제시한 의료·요양 통합, 스마트 요양, 재가·지역사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산업 육성 흐름을 정리함
 - 학술교류 자료는 향후 원내 연구자가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 동향, 산업 전환 사례, 고령사회 대응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협약서]



한국 인천연구원 중국 산둥사회과학원

「인천연구원 - 산둥사회과학원 학술교류 세미나」 공동주최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 인천시와 중국 산둥성은 각각 자국을 대표하는 주요 지역으로서 2004년 우호협력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후 고위급 상호 방문과 경제·무역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인천연구원과 산둥사회과학원은 2006년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협정서」를 체결한 이후 긴밀한 학술교류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공동 관심 의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학술교류 및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인천연구원 - 산둥사회과학원 학술교류 세미나」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인천연구원과 산둥사회과학원은 (이하 "양 원") 「인천연구원 - 산둥사회과학원 학술교류 세미나」 (이하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그 범위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협력사항) 양 원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1. 양 원은 세미나의 공동 주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 세미나는 매년 윤번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충분한 준비기간과 예산 확보를 위해 조정할 수 있다.
3. 세미나의 의제 (행사주제)와 개최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세미나의 형식과 참석자, 후원 및 협조기관, 언론보도 등 회의 전반에 대한 사항은 당해연도 개최지의 기관이 먼저 제의하고 양 원은 이에 기초하여 공동 협의한다.
5. 사전 협의를 거쳐 공동연구 등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 3 조 (이행의무) 양 원은 제 2 조의 협력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와 기관의 관련 제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거나 별도의 부속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제 4 조 (비용부담) 양 원은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양 원은 공동 주최기관으로서 개최지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소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한국 측 개최 시: 인천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서 회의의 조직 및 운영을 담당하며, 항공료 및 숙박비 제외한 회의 및 조사활동 등 제반 경비는 인천연구원이 부담한다.
2. 중국 측 개최 시: 산둥사회과학원이 주관기관으로서 회의의 조직 및 운영을 담당하며, 항공료 및 숙박비 제외한 회의 및 조사활동 등 제반 경비는 산둥사회과학원이 부담한다.
3. 회의 및 조사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개최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되는 체류 및 기타활동은 방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4. 공통으로 부담할 경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제 5 조 (변경) 이 협약은 양 원의 협의에 따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 6 조 (해석) 만약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혹은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양 원은 공동협의를 통해 해석할 수 있고, 해석권은 양 원 모두에게 있다.

제 7 조 (발효) 이 협약서는 한글과 중문으로 작성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양 원은 한글과 중문으로 각 한 부씩 보관하고 양 원 대표의 서명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천연구원

원장 최계운

2026년 5월 21일

산둥사회과학원

원장 후친샤오

2026년 5월 21일



中国山东社会科学院 韩国仁川研究院 关于共同举办“山东社会科学院—仁川研究院学术交流研讨会”的合作协议

中国山东省与韩国仁川市作为各自国家的重要代表性地区，于2004年建立友好合作关系，此后通过高层互访以及经贸交流等，在多个领域开展了广泛合作。

山东社会科学院与仁川研究院自2006年签署《学术交流与研究合作协议》以来，一直保持密切的学术交流与合作关系，并围绕双方共同关注的议题，定期举办学术研讨会，为两地经济社会发展作出了积极贡献。

为进一步深化双方学术交流与合作关系，推动“山东社会科学院-仁川研究院学术交流研讨会”持续发展，双方达成如下协议：

第一条（目的） 山东社会科学院与仁川研究院（以下简称“两院”）为定期共同举办《山东社会科学院-仁川研究院学术交流研讨会》（以下简称“研讨会”），明确研讨范围及有关事项。

第二条（合作事项） 两院本着相互信任与理解的原则，就以下事项同意开展合作：

1. 两院作为研讨会的共同主办单位，享有同等地位。
2. 原则上研讨会由两院每年轮流举办，但为确保充分的准备时间和经费保障，经双方协商可适当调整；
3. 研讨会议题（会议主题）及举办时间由双方协商确定。
4. 研讨会的举办形式、出席人员、支持及协办机构、媒体报道等有关事项，由当年承办地的机构先行提出，双方在此基础上共同协商确定。
5. 经事先协商，可开展共同研究等相关研究活动。

第三条（履行义务） 两院应认真履行第二条规定的合作事项。在履行过程中，原则上适用各自所属国家及机构的相关法律和规定；必要时，具体事项由双方协商确定，或另行签署补充协议。

第四条（费用承担） 两院按照互惠平等原则，共同承担履行本协议所需的各项经费。两院作为共同主办单位，根据举办地分工承担相应职责，并按如下方式分担相关费用；其他共同费用由双方协商确定。

1. 在中方主办时：由山东社会科学院作为主办机构，负责会议的组织与运行；除机票和住宿费用外，与会议及调研活动相关的各项费用均由山东社会科学院承担。
2. 在韩方主办时：由仁川研究院作为主办机构，负责会议的组织与运行；除机票和住宿费用外，与会议及调研活动相关的各项费用均由仁川研究院承担。
3. 与会议及调研活动相关的具体事项由双方通过事先协商确定；在举办城市以外地区开展的停留及其他活动，由访问方自行安排。
4. 对于需共同承担的费用，由双方协商确定；未尽事宜，由双方通过协商处理。

第五条（变更） 本协议经两院协商，可对全部或部分进行变更或终止。

第六条（解释） 如对本协议的解释存在异议，或在履行过程中需要明确相关事项时，两院可通过共同协商予以解释，解释权归两院共同享有。

第七条（生效） 本协议以中文和韩文制成，具有同等效力，双方各执中文和韩文本各一份，自双方代表签署之日起生效。

山东社会科学院

院长 胡钦晓

2026年5月21日

仁川研究院

院长 崔桂潭

2026年5月21日

[관련 기사]

■ 세계일보 2026년 5월 22일

인천연구원·중국 산둥사회과학원 한·중 학술교류 맞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6-05-22 19:09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인천연구원과 중국 산둥사회과학원이 학문적 공유에 맞손을 잡았다. 인천연구원은 21일 산둥성 지난시에서 한·중 양국 전문가 및 연구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학술교류 세미나'를 산둥사회과학원과 개최했다.

이날 글로벌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는 '체험경제' 및 '헬스케어' 중심으로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두 기관은 학술교류 협력 협약도 연장 체결했다.



최계운 인천연구원장은 "정기 세미나, 공동 연구, 정책 교류를 위한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의 발전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새로운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친샤오 산둥사회과학원 원장은 "체험경제·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논의는 추후 실효성과 선도성을 갖춘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둥과 인천, 더 나아가 한중이 머리를 맞대는 중요한 지적 지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체험경제 세션에서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디지털 인문 전환 전략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헬스케어의 경우 양측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내세워 사회적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민생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더욱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중국 산둥사회과학원 학술교류 세미나 개최

한중 지역 발전 전략 모색...공동 연구·정책 교류 기반 강화

김대민 기자 업데이트 2026.05.25 12:51 | 2026.05.23일자 16면 | 댓글 0



최계운 인천연구원 원장이 지난 21일 열린 2026 산둥사회과학원-인천연구원 학술교류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인천연구원 제공>

인천연구원이 중국 산둥사회과학원과 함께 지역 발전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학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21일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산둥사회과학원-인천연구원 학술교류 세미나'를 열고 체험경제와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중 지역 발전 전략과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양국 연구자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학술교류 협력 협약 연장도 체결했다.

체험경제 세션에서 최태림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 연구위원은 '인천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체험경제 정책 구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송도국제도시 등과 함께 체험경제 기반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헬스케어 산업 세션에서는 최여울 환경안전연구부 연구위원이 '건강한 실내환경과 시니어 헬스케어-인천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고령친화 정책과 실내환경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산둥사회과학원은 타이산·황허강·공자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한 '프렌들리 산둥(好客山东)' 브랜드 육성 등 산둥의 실천 사례와 의료·돌봄을 결합한 시범성(省)으로서 산둥의 경험을 소개했다.

후천샤오 산둥사회과학원 원장은 "이번 논의는 산둥과 인천에서 더 나아가 한중 실질협력에 중요한 지적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계운 원장은 "이번 협약 연장을 계기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 수요에 맞는 새로운 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국산동망 2026년 5월 21일

2026山东社会科学院-仁川研究院 学术交流研讨会召开 中韩智库共探 发展新引擎

中国山东网 2026-05-21 15:01:41



中国山东网·新感知5月21日讯 5月21日上午，“2026山东社会科学院-仁川研究院学术交流研讨会”在山东济南成功举办。来自中韩两国的40余位专家学者，围绕“体验经济”与“康养产业”两大全球增长新引擎及区域民生热点议题展开深入研讨。研讨会期间，两院续签了学术交流合作协议。

山东社会科学院院长胡钦晓在致辞中表示，两院均肩负着服务地方决策、推动经济社

山东社会科学院院长胡钦晓在致辞中表示，两院均肩负着服务地方决策、推动经济社会发展的重要使命，自2006年以来始终保持密切的学术交流与务实合作。聚焦体验经济和康养产业深入研讨，必将形成前瞻性、可操作的政策建议，为山东与仁川乃至中韩务实合作提供有力的智力支撑。仁川研究院院长崔桂滢表示，双方合作不仅是智库间的学术往来，更是拓展地区间务实合作的重要实践。此次续签合作协议，将进一步巩固合作关系，为定期学术研讨、协同研究和政策交流奠定更加坚实基础，期待双方在此基础上拓展更加贴合区域发展需求的新型合作议题。



在体验经济研讨环节，中韩专家聚焦产业结构升级与数字人文转型路径。仁川研究院仁川经济动向分析中心主任、研究委员崔泰林以

《仁川市产业结构转型的体验经济政策构想》为题，分享了松岛国际商务区等项目的实践经验。山东社会科学院经济研究所助理研究员于婷作《山东体验经济发展形势及展望》报告，分析了山东依托“一山一水一圣人”等文旅资源，打造“好客山东”品牌、推动体验经济高质量发展的实践路径。

康养产业研讨环节，双方围绕共同面临的人口老龄化挑战，共商老龄化社会的智库方案。山东社会科学院人口与社会发展研究院副研究员刘娜以《山东老年康养产业的发展现状与典型案例》为题，介绍了山东作为医养结合示范省的典型经验。仁川研究院环境安全研究部研究委员崔汝蔚以《健康室内环境与老年健康护理：以仁川为例》为题，从微观建筑环境优化与老年福祉提升角度，分享了韩国老年康养的成熟实践。

未来，两院将全力推动合作走深走实，以智库之智服务地方发展，以学术之力增进民生福祉，为构建更加紧密、友好的中韩关系贡献学术力量。

中国山东网记者 李真 修泽旭 报道

2026년 5월 21일 산둥사회과학원과 인천연구원은 중국 지남에서 학술교류세미나를 개최하고, 체험경제 및 헬스산업을 주제로 공동 논의를 진행함.

양 기관은 2006년 이후 지속해 온 학술교류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학술교류 협력협정을 재체결함.

세미나에서는 체험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산업구조 전환, 디지털-문화 융합, 관광 및 지역브랜드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였으며, 헬스케어산업 분야에서는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 실내환경과 건강관리 등의 정책 사례를 공유함.

양 기관은 향후 공동연구, 정기 학술교류, 정책협력 등을 확대하여 지역 발전과 한-중 지방협력 강화에 기여하기로 함.

■ 중국산둥망 2026년 5월 23일

<https://www.youtube.com/watch?v=9VjZ1fz6ECs>

The video player shows a signing ceremony. Two men in white shirts stand on a stage holding blue folders. The background is a large blue screen with the text '山东社科院--仁川研究院 交流合作协议签约仪式' (Signing Ceremony of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Shando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Incheon Research Institute). Logos for 'sdchina.com' and 'New Horizon' are visible in the top left, and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is in the top right. A subtitle in Chinese and Korean is displayed at the bottom of the video frame.

交流现场气氛热烈 两院续签了学术交流合作协议 与会专家学者展开深入交流
현장에서는 활발한 분위기 속에 양 기관은 학술교류 협력 협약도 연장 체결했고 전문가와 학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5월 21일, 산둥성사회과학원과 인천연구원이 학술교류 회의를 개최했다. #산둥 #인천 #교류 #협력 #학술회의

touchshandongkr 구독자 1.32만명

0 0 공유 질문하기 저장 오프라인 저장

■ 개회식



■ 협약식



■ 학술교류 세미나



